



학교폭력 예산 '삭둑' ... 道교육위 '눈총'

학교폭력 예방 차원 다각적 교육프로그램 도입 절실 당장 1월부터 학생생활부장 업무부담 가중될 전망

해마다 학교폭력이 증가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충남 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지난 5일 내년도 충남도교육청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예산 5천만원, 2천5백만원으로 ▲학교폭력담당 보조인력 인건비 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민원신문고 및 특별점검단 예산 2억4천234만1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학교폭력담당 보조인력 인건비는 현재 각 학교 학생생활부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 인건비로 이전에 예산안이 모두 삭감됨에 따라 당장 1월부터 학생생활부장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원신문고 및 특별점검단 예산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할 변호사 비용으로 현재 도교육청에는 1명이 배치되고, 내년에 2명의 변호사를 더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계 일각에서는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시하고 신중히 다뤄져야 할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무책임하게 처리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충남도내 학교 폭력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 16만2419명 중 94.7%인 15만37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429명(0.9%)으로 지난해 2차 조사 대비 0.04%p 감소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0.7%, 고등학교 0.5%이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0.3%p가 감소했으나 중학교 피해응답률은 0.2%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율을 보였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위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세울 것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앤 것은 교육위 위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학교폭력 예산 삭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 지적도 있다.

현재 교육위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는 점에서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36·서산) A씨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교육위가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앤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도적으로 학교폭력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교육사업 예산 가운데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교육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등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재검토해 예결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교육위가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앤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도적으로 학교폭력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교육사업 예산 가운데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교육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등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재검토해 예결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창의융합 체험교육기회 제공

태안교육지원청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운영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과학 창의 융합 체험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태안교육지원청 관내 초·중등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공주교육대학교 방과후학교 '나우누리'(이사장 이기재) 부설기관인 대전 둔산동 소재 '로봇·코딩 체험센터'를 찾아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영호기자

물고기, 로봇댄스 공연을 관람하고 드론, 로봇격투, 로봇축구, 로봇 시뮬레이터, VR, AR을 체험하며 직접 로봇 제작 및 3D펜을 실습해 보는 등 신기한 과학 세상에 푹 빠져들었다.

태안교육지원청 관내 방포초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우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장거리인 데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서두른 시간인 아깝지 않다며 흐뭇해 했다.

특히, 학생들은 정렬된 로봇들

이크레용 팜, 숫자송, 강남스타일 등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자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 했는데 교육관계자들은 진행자의 과학상식 질문에 재치있게 답변하는 학생들을 보며 4차 산업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공주교육대학교 방과후학교 '나우누리'(이사장 이기재)는 2016년 교육부 우수기관인증 대 학주도형 방과후학교이며, 현재 6개 교육지원청 순회강사 사업과 60여 단원학교 전체취약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방과후교육의 대비를 위해 로봇·코딩체험관, 파크 오브 드림 글램핑장, 휴식리·상담센터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옛 충남도청사 개발 시동 ... 원도심 활성화 큰 기대

공공·행정기관 유치 ·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 계획

정부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사들이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 복합 단지와 창조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와 정부 간 줄다리기를 해왔던 대전의 숙원 사업이 풀리게 됐다.

옛 충남도청사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로 국가매입을 추진해 온 대전광역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802억 원 가운데 계약금 명목의 80억 2000만 원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매입비 전액인 802억 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온 대전시는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지역정지권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주관부처인 문화부를 관할하는 국회 교문위와 예결위를 통해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문체부)의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정부가 직접 사용하거나 대전시가 무상양여 또는 50년간의 장기대부를 받아 시 주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제시한 메이커문화 플랫폼 조성을 일괄 부 수용하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상주근무자 확대를 위해 근대문화제인 옛 충남도청사 본관에 공공·행정기관을 유치하고, 나머지 신축 건물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타깃을

한 메이커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원도심 경제를 이끌어갈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해 온 박병석 의원은 "대전시장이 쉼 없이 성장해 오고 있지만 이제 도시경쟁력 대항 등 대전시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국비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국비 반영을 계기로 대전의 구도심 등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충남 희망마을선행사업 참여

여성추진위원장 0.7%에 불과

충남의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여성리더들이 마을행사의 단순지원 비중(49.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활성화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마을만들기 젠더커버

넌스 실천방안' 연구에서 2016년 희망마을선행사업에 참여한 마을의 리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녀회장의 90% 이상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서류상 직책에 불과하거나 사업 기획과 관리 역할보다는 마을행사를 위한 음식준비나 마무리 등 '마을의 주부' 활동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추진위원장이 29.3%, 추진위원 35.3%가 참여한 반면, 여성은 추진위원이 47.3%이며 추진위원장은 0.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마을 내 직책의 성별 대표성 분포가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 추진위원은 대부분 부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역할 분담 결과, 여성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참여로 인한 개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여성들은 만족감·자신감(여성 3.65점, 남성 4.03점), 행정·전문가와와의 관계(여성 3.60점, 남성 3.99점)에서 낮은 만족도가 나왔다.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는 주민참여 거버넌스이지만, 주민참여자의 대표성이나 활동내용, 역량강화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마을주민 여성들이 마을만들기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충남 마을만들기 사업의 여성참여 필요성 공론화, 성별 참여 격차 해소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

래안에서

가슴 따뜻한 직육어행, 태안으로 오세요!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지역 건립 '청신호'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 9개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앞서...설계비 반영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 지역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병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사진)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9개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앞서 대전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8억)가 반영되었다고 6일 밝혔다.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과제로 전국의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소아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

함에도 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적으로 1곳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는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전에는 선례도 없거니와 예산 반영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박병계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요구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집의에서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어린이 재활병원 설계비 8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

의 2018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아동 간우 아빠의 1004배 자리에도 함께 하는 등 각별한 열의를 보였다.

이 밖에도 대전시가 현안사업으로 잡고 있는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80.2억), 수소제품 성능평가센터 건립(10억), 향후 국토부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반영되어 중구 원도심 발전과 4차산업특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병계 의원은 장애아동의 조 사망률이 일반인의 37.9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대전지역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면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청남북도, 전북지역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예산 8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조속한 건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재활과 치료의 기회를 주는 병원 건립을 국가가 약속하고 실천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기 그 의미가 실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랫동안 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신 많은 관련 단체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당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자유한국당세종시당은 6일 오전 조치원읍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내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는 연탄 1500장을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고자 진행됐고, 이날 봉강한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정치대학원 1기 수료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30여명의 당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장 박종래 확정

제164차 중앙당 최고위원회 열어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 < 사진 >이 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덕구 지역위원장에 확정되었다. 그간 대덕구 지역위는 2016년 7월 13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사고지 지역위원회를 편성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7

일 대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받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대전시 3개 권역지역위원회중에서 1위, 전국 호남제외의 사고지위원회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시 대덕구는 선거결과 문재인 후보 40.5%, 안철수 후보 24.3%, 홍준표 후보 21.7%를 득표한 바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 선정은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5일 면접심사를 거쳐 박 의장을 추천했고, 6일 열린 164차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장을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최종 인준을 거쳐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을 임명해 지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되며 이어 지역대의원대회 개최 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면 지역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정복기자

중구의회 '2017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대전 중구의회 의장 하재봉은 2017년 12월 5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철도역 주변 소음방지 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등 15건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육상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심사보고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3%증가한 3,940억 4,36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5,423만원이 증가한 3,855억 6,2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3억 2,712만원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액된 84억 8,164만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와 특별조정

교부금, 변경내시액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과 성립전 사용사용분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과 예산잔감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홍순국 의원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원안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에서 "지난 1년여 간의 특수활동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당초 노선 '서구 가수원 네거리부터 중구 서대전역 사이의 구간' 동시착공 원안사수를 위해 1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1만여명이 서명하는데 동참하였다"고 밝히며 "메트로와 서대전역과의 지하화에 대해서도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전시에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노

선 동시착공 및 메트로와 서대전역과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하여 주민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했다.

조재철 의원은 '철도역 주변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철도역 주변의 주민들은 고속철도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거생활이 한시도 편안할 날 없이 지속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대변하며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김정환기자

수도권 전철을 천안역~청수동~삼봉동~독립기념관까지 8km를 연장하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총3,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되면,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며, 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이명수 의원, 관광자원화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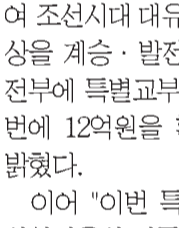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갑)이 6일, 지역현안사업인 외암민속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명수 의원은 '외암마을은 연간 42만명이 찾는 아산의 대표적인 문화재시설이자 관광자원이나 실제 외암 이간선생의 생가는 소멸된 상태'라며, "이에 외암 이간선생의 출생과 성장을 담은 생가터를 복원하여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외암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고, 이번에 1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외암마을의 전통문화 보존 및 관광문화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외암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아산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



수도권 전철을 천안역~청수동~삼봉동~독립기념관까지 8km를 연장하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총3,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되면,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며, 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청수파출소 신축 예산 17억 확보

양승조 의원, 경찰청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 설득 쾌거

천안 청수파출소 신축 사업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되었다.

양승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이)이 천안 청수파출소 신축 예산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천안 청수지구는 최근 행정타운 조성 및 단지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112신고 및 교통사고 등의 증가로 시민들의 파출소 신축에 대한 여론이 고조된 곳이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파출소 신축 요구를 접하고 지난 수개

월 동안 이철성 경찰청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신축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끈질기게 요청하였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천안 청수파출소 신축비용 17억원이 최종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수지구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천안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성일종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전액 기부 밝혀

예산안 통과되더라도... 세비인 전액 기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지역현안사업인 외암민속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

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월평균 17만원(일반수당 월평균 64만1천원 → 663만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성 의원은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며 "세비인상안을 철회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내내 세비 동결을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 복핵위협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비인상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뒷전에 두고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어기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2018 정부예산안심사 종료...충남도 SOC와 미래산업 예산 확보 및 당진시 현안사업 해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지난 5일 자정부터 11월 3일부터 시작해 33일 동안의 2018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예결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어 의원은 야당의 극심한 예산 감액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새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을 대표해 예결소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의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충남도민의 숙원인 장항선 신설사업 50억 원 확보, 서해안선 복선전철 사업(663억

원)과 더불어 서해안의 철도교통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대전시와 충남도의 공동과제인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80.2억 원)를 통해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이 열렸다.

한편 어 의원은 지역구인 당진시의 현안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주요 현안사업 중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농어촌보건의료 지원 37억 원,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88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요 SOC 사업 중 ▲신평대항간 연륙교건설 실시(설계비 10억 원)·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당진-아산구간 기본조사비 5억 원, ▲대산-당진 고속

도로 건설비 7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비 663억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5억 원, ▲장교항 건설 10억 원, ▲산교전 배수갑문 확장 20억 원을 확보하고 ▲서해선복선전철 합덕역 지하통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길을 열었다.

특히 당진시민의 염원이며 도계분쟁의 현재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진평택항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한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솔피성지에 기념관 건립이 일반회계로 사업이 확정되어 당진이 명실상부한 천주교 순례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가매입비 80억 2천만 원 확보

이은권 의원,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 열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억 2천만 원을 확보해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의 활용은 '16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이후 이은권 의원의 노력으로 '17년 '국유재산특별법' 개정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국가의 의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감

정평가까지 완료하면서 도청사의 국가매입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 보시절 '충남도청 이전부지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을 공약하면서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편성 등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예산안에 매입비 80억 2천만 원 중 계약금명목으로 10%인 80억 2천만 원 조처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은권 의원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결과, 11월 16일 열린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옛 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사업비 80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통과하며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국가(문체부)가 도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해 직접 활용하거나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하여 문화예술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 전부가 아닌 일부지만, 향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사업진행차도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깊다.

이정복기자

이명수 의원,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후생·복지지원 정책과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인, 자유한국당 6인, 국민의당 3인, 비교섭단체(민중당) 1인 등 위원장 포함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소집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2018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이명수 의원, 관광자원화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갑)이 6일, 지역현안사업인 외암민속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

수도권 전철을 천안역~청수동~삼봉동~독립기념관까지 8km를 연장하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총3,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되면,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며, 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청수파출소 신축 예산 17억 확보

양승조 의원, 경찰청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 설득 쾌거

천안 청수파출소 신축 사업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되었다.

양승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이)이 천안 청수파출소 신축 예산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천안 청수지구는 최근 행정타운 조성 및 단지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112신고 및 교통사고 등의 증가로 시민들의 파출소 신축에 대한 여론이 고조된 곳이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파출소 신축 요구를 접하고 지난 수개

성일종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전액 기부 밝혀

예산안 통과되더라도... 세비인 전액 기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지역현안사업인 외암민속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

어기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2018 정부예산안심사 종료...충남도 SOC와 미래산업 예산 확보 및 당진시 현안사업 해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지난 5일 자정부터 11월 3일부터 시작해 33일 동안의 2018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예결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어 의원은 야당의 극심한 예산 감액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새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을 대표해 예결소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의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충남도민의 숙원인 장항선 신설사업 50억 원 확보, 서해안선 복선전철 사업(663억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가매입비 80억 2천만 원 확보

이은권 의원,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 열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억 2천만 원을 확보해 향후 도청사 활용의 길이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의 활용은 '16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이후 이은권 의원의 노력으로 '17년 '국유재산특별법' 개정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국가의 의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후생·복지지원 정책과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인, 자유한국당 6인, 국민의당 3인, 비교섭단체(민중당) 1인 등 위원장 포함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소집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2018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이명수 의원, 관광자원화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호남선 고속화 사업' 본격 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 전년 比 0.09점 상승

서대전역 활성화 되나

대전광역시 서대전역 활성화 를 위해 꼭 필요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돼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내년에 사

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29.3km) 광곡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 4,5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그동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호남고속화 신규반영 건의,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서대전역 KTX 운행 구간 축소 및 감편으로 인한 충청·호남권 7개 시·도지사의 호남선 고속화사업 필요성 공감 합의문 채택, 지역주민, 호남향우회, 대전경제 및 시민단체 건의서 제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계 기관 협의안 제출 및 중앙부처와 지역정치권 방문 설명 등 과정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현재 가수원에서 논산까지(28분→18분) 10분 단축을 통해 호남선 KTX 증편에 따른 서대전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호남과의 교류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중앙부처 설득 노력한 결과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전타당성조사 시작으로 '19년 예비타당성조사, '20년 공사 착공을 위해 총남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하면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합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천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합이 있는 민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그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제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전년도에 비해 전년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항공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별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다.

금년도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더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체

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견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 교육청(10.2%)이 가장 높았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 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원으로 전년 84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지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제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 7천만 원), 경남 함안군(4억 9천만 원), 국제청(4억 1천만 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 원), 경북 경주시(3억 6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 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행복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분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설계공모로 부지를 공급한 어진동(1-5생활권) 3개 및 나성동(2-4생활권) 6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성동(2-4생활권) 1188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및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은 문화·국제교류 및 중심상업지구로서, 도시문화사업가로(어반아트리움),

백화점(예정부지) 등 중심상업시설과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여가시설이 집적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HC3·H03단지(1188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및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은 HC3·H03단지(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 2개 단지 1188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및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모하였다. 특히, 지상 163미터 최상층(49층)에 설치하는 전망대는 단지주민뿐 아니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금강변의 대표공간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2018년 이후 공급하게 될 집현리(4-2생활권) 및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도 행복도시의 품격에 걸맞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주거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대전·세종지역 5개 전문대학

능력이 문화의 거리 환경정화 활동

대전·세종지역 5개 전문대학(대전대학교 총장 김상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은기,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서중석, 우송정보대학 총장 정상직, 한국영성대학교 총장 유재원은 지난 6월 14일, 5개 대학간 교육 및 행정 인프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협력분야 이행 과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논의하고, 12월 5일 오후 대전광역시 능력이 문화의 거리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개 대학 총장과 보직자, 교직원, 학생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지원봉사센터에서 봉사물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5개 전문대학 총장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과 교육기부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동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겨울방학기간 중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행정 소모품 공동 구매, 교육 분야 공동 연구 등으로 협

력 분야를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전문대학간 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으로서의 입지를 떠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5개 대학 각각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다.

김상인 총장은 "이러한 협력 활동은 전문대학이 일반 4년제 대학과는 다른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구성원은 물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주시 2017년 응급의료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충남도 주관으로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응급의료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대회에서 시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장비 관리, 다수사상자 구조 훈련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 동 정 ●

학부모연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7일 오후 3시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2017 대전교 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및 학부모연수'에 참석.

대전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7일 오후 5시에 BMK컨벤션에서 열리는 2017 대전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에 참석.

충효인성교육원 MOU행사



한현택 동구청장= 7일 오후 3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충효인성 교육원 MOU 행사에 참석.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



박국중 구청장= 7일 오후 5시 청사 구민 사랑방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금 전달식' 참석.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점등식



장종태 서구청장= 7일 오후 5시 보라매공원 중앙무대 대명트리 앞에서 열리는 '보라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점등식'에 참석.

2017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



허태영 유성구청장= 7일 오전 10시 30분 유성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2017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에 참석.

목욕 현장대화의 날



박수범 대덕구청장= 7일 오후 2시 용호동 하용호마을 등 8곳에서 열리는 목욕 현장대화의 날에 참석.

市, 방위사업청과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첨단국방산업전' 공동 개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대전광역시 6일 방위사업청과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업무협약식

이날 협약식은 6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방산진흥국회의실에서 방사청 오원진 방산진흥국장과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협약은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한 전시회 시기 및 장소, 공동협력의 범위, 추진체계, 행사 개최 비용 부담,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른 보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시회는 2018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은 국내 방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요자(소요군·체계업체)와 개발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10년부터 방사청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시는 전시회 대전 유치에 방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내년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은 시가 '07년부터 산·학·연·관·군 등과 협력해 신성장 동력사업인 국내 방위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국방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의 국방시장 진출 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해 육군교육사와 국방기술품질원과 매년 공동 주최하는 무기 및 전력자원체계 종합전시회인 첨단국방산업전

과 통합하여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비를 투입해 시 특화산업으로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방사청과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관련 부품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기술과 품질 중심의 글로벌 국방산업으로 발전하기 기술교류 및 국내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8 방위산업 부품·장



동구,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최선”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범국가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훈련에 참여한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평가단에서 훈련준비과정과 훈련실시, 결과보

고, 개선현류 등에 대한 서면·현장·사후평가로 이뤄졌다. 동구는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해 재난발생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논의하는 토론훈련과 재난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의 가스폭발 화재를 가상한 다중목적시설 대형화재 재난대응 현장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평가단으로부터 시

나리오 구성이 뛰어나고 훈련 상황이 잘 구현됐으며, 훈련 참여자들의 숙달정도가 높아 재난지침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정확하게 이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훈련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지난 훈련에서 재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서구, 2017년 생활안전지킴이 평가 보고회 개최 주민 불편사항 제로(Zero) 화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안전 지킴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생활안전지킴이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생활 안전 지킴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 불편사항을 제보해 신속한 조치로 주민 불편사항 제로(Zero) 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왔다. 또한, 한해 60여 명의 지킴이는

불법 주·정차단속 등 교통 불편 분야 96건, 도로(보도)분야 76건, 공공시설물 분야 42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 분야 34건 총 248건의 생활 안전 제보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지킴이는 "가장동 버거지 주변 교통 신호체계 개선, 남부소방서 앞 차선 도색, 유등천변 시설물 보수, 불법 주·정차지역 상시단속 등 많은 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돼 지킴이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생활안전 지킴이 제도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청렴도 평가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 달성

박수범 청장 “부패제로 대덕구 실현”

대덕구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위와 함께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다. 대덕구는 5년 연속 대전 자치구 종합청렴도 1위 달성이라는 성과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는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8.56점(1등급, 내부청렴도 8.5, 외부청렴도 8.56)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연속으로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대덕구는 내부청렴도 또한 1등급 기록을 이어가는 한편, 외부청렴도에서도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청렴도시 대덕구' 이미지를 굳혔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와 관련 "청렴도 1등급, 전국 1위, 5년 연속 대전 자치구 1위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을 향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의지, 관련 부서의 지속적 노력 덕분"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청렴한 시책 개발과 의식 함

양에 힘써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대덕구 수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래 첫 종합평가 1등급이라는 쾌거와 함께 전국 자치구 단위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것을 큰 쾌거로 평가했다. 특히 5년 연속 대전 5개 자치구 평가 1위라는 기록과 함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적표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다 양하고 지속적인 자체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방증했다.

대덕구는 공직자 청렴 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관 내부 직원들과 외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태선 기자



저출산 고령화 극복 순회교육 실시 중구새마을부녀회는 6일 오전 10시30분 신은자 중구새마을부녀회장 및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수영 교수는 "환경과 변화를 주도 하는 새마을에서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 하반기 정보공개 실태점검

중구는 하반기 정보 공개 실태 점검을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처리,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등 3개 분야에 걸쳐 중구 홈페이지(www.dijung.go.kr)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구는 금년도 하반기 정보공개

청구 603건, 사전정보공개 525건과 원문 정보공개 832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이관군 파인건설 대표, 성금 1억원 쾌척

대전 소외계층·포항 지진피해 지원



이관군 파인건설 대표는 6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전 소외계층 성금 및 포항 지진피해 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파인건설은 2012년부터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소외된 아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김장나눔행사 등 대전 지역내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에는 네팔지진 피해지원 성금 기탁 등 갑작스러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나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7월에는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관군 대표는 2014년 1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 힘입어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한 만큼,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매년 개인 및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이관군 대표는 "추운 겨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파인건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기호 대전공동모금회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나눔을 실천해 준 이관군 대표에게 감사패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나눔으로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18나눔캠페인'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간 이어지며 올해 목표 모금액은 59억2300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모인 성금은 대전 지역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단체들에게 전액 사용된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042)538-3030

서산시 지방세 3000억원 '돌파'

도세 1101억원 · 시세 1958억원 등 3059억원 지방세 재원 확보

서산시가 지방세 3000억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시는 올해 도세 1101억원과 시세 1958억원 등 3059억원의 지방세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5%인 389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인 2627억원보다 16%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로써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개발사업에 따르는 자주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활동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를 추진해 75,300건에 8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철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352건에 37억



원을 추징했다. 미신고·상속재산, 구조·지목변경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현미경

세정업무를 추진해 2만7341건에 74억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경고 독촉장 발송과 고액 체납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비과세·감면분 추정사유 안내 등에 힘쓴 점도 이번 성과에 한 몫 했다.

특히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구축과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한 점이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보다 분납 유도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성철 시 세무과장은 "공평과세 실현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는 건실한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철저한 세수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홍성군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앞장'

홍성군은 노동정책과 노사협력사업 상생추진 및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6일 관계자 1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 ▲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노사민정 공동 선언문 채택 등이며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훈련과 지역단위 고용, 노동, 훈련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 정례회 개최는 물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5인(노 1, 사 1, 민 1, 정 2)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편성하여 신속한 협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주민 행복 증진을 담고 있는 상호 협력 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 자리에서 2018년 일자리사업 보고도 함께 진행됐으며, 60대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함에 따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에 의견을 함께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은 좋은 일자리 2,193여개 창출을 통해, 고용률 71.5% 달성이 목표이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조성에 협의회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홍성군은 기업친화형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형 특별한 일자리, 특화된 일자리 기반강화 등 4대 분야 8대 정책 방향을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김정한기자



현대차아산공장 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원 전달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공장장 이상훈)은 지난 5일, 아산시시장 박기왕을 방문해 '희망2018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훈 공장장, 한석모 노동조합사무장 등 4명이 참석해 전달한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18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에 총 1억9500만원의 성금 기탁, 아산행복드림 사업지원, 아산 교육지원청 장학금 지원, 2017. 8월에는 복지시설 4곳에 1억원 상당의 차량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든든한 복지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산=리명주기자



SY행복나눔재단-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복지시설 후원 아산시는 5일 SY행복나눔재단(이사장 김중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원식)와 사회복지시설개보수 및 주거개선사업을 위한 8천만원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청양군 청년층에 일자리 제공 대학생(인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청년층에게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한 청양 만들기를 위해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대학생(인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진되는 대학생(인턴)일자리사업에 총 35명의 대학생(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로 접수는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940-2337)에서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발되는 대학생은 군청 각 부서에 배치되어 직장체험 및 행정업무 보조 등을 맡아 근무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학 재(휴)학생으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인턴)일자리사업은 동·하계로 나눠 2개월씩 총 7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청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국립나주숲체원 조성 '탄력' 주민설명회 열려

국립나주숲체원 조성사업 설명·주민화합의 시간 마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5일 전남 나주시 경현동 노인회관에서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나주숲체원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나주숲체원의 착공에 앞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숲체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주민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소개, 숲체원 조성공사 개요·추진현황 설명, 숲체원 내 야생차별 조성 토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국립나주숲체원은 광주·전남 권역의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로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산림문화·치유 프로그램을 특화·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운영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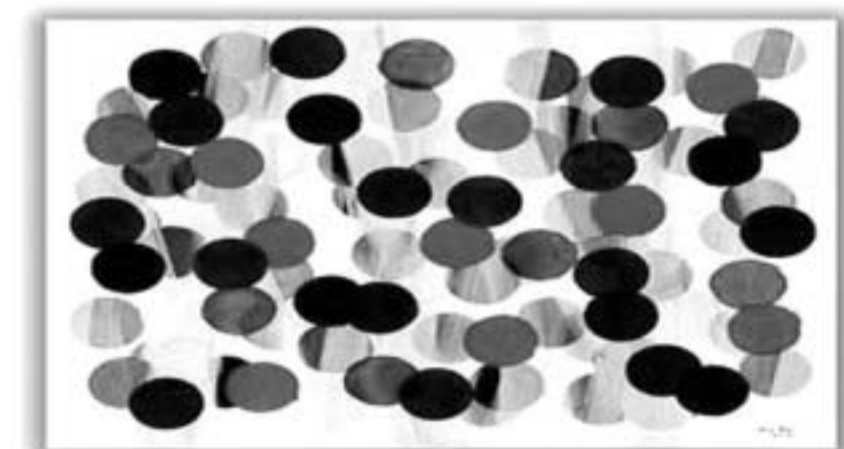
나주숲체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광주·전남 권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권역별 산림복지시설인 숲체원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이윤동 서양화 'Z를 위한 집합'

이윤동 교수의 22번째 개인전... 7~24일까지



한국조폐공사는 7일부터 24일까지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 특별전시실에서 국립 안동대학교 이윤동 교수의 회화전 'Z를 위한 집합'을 개최

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가 이윤동 교수의 22번째 개인전으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윤동 교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신조형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안동대 예술·체육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유화와 아크릴 작품 15점으로 색채와 점, 선 등 회화의 기본요소와 원, 면의 만남을 통해 다양성의 조화와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윤동 교수는 "회화의 DNA로 일컬을 수 있는 원초적 단위의 집합과 조합으로 자연과 세계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화폐 박물관 이강원 차장은 "오랜 활동을 이어온 화가의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대동빌딩 7층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호서대학교 - 중국 후난성 호남이공대학 화장품 전공 학술교류 및 산학협력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6일, 강석규 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후난성 호남이공대학(湖南理工學院) 방문단과 화장품 전공 학술교류 및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호남이공대 화장품 전공 개선 및 중국 국제 화장품 연구소 공동 설립 등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호서대 고학림 부총장, 정백호 공과대학장, 채희정 생명보건대학장, 박설호 국제협력원장과 호남이공대 장국은 부총장, 당과문 대학원장, 후조희 과

기처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호서대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중국대학과의 협력 사업에 꾸준한 투자와 집중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해 연변대학과의 '정보통신공학 교육협력 사업'에 이어 두 번째 중국 대학 간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으로 양 교는 ▲국제 화장품 연구소 공동 설립 ▲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임명 ▲유학생 교류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화장품학과 공동설립 등의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사)한국천문우주과학협회

한남대에 1,000만원 장학금 기탁



(사)한국천문우주과학협회가 6일 한남대 미디어영상전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천문우주과학협회 최형빈 회장은 이날 한남대를 방문해 이덕훈 총장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최 회장은 "미디어영상전공 소속 '꿈을 여는 창의공작소' 학생들과의 산학협력으로 전국 천문대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학과와 학생들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의공작소(소장 최준용 미디어영상 4년, 지도교수 이은석)는 천문우주과학협회와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의 북극 북두칠성과 단명 소년', '쏟아지고 찬란했던 행성 이야기' 등 애니메이션과 디

지탈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영상들은 전국 천문대에서 상영되고 있다.

창의공작소는 또한 ㈜분다빈치와의 산학협력으로 2016년 '미켈란젤로 전'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했고, 내년 초 전시를 목표로 '삼국지 전'을 준비 중이다. 창의공작소는 또한 ㈜분다빈치와의 산학협력으로 2016년 '미켈란젤로 전'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했고, 내년 초 전시를 목표로 '삼국지 전'을 준비 중이다.

이덕훈 총장은 "창의공작소는 산학연계 실무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100% 취업에 성공하는 등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과 취업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팜파티' 청양 농업의 새로운 활력

청양군, 농촌문화 즐기는 '팜파티' 인기몰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도·농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6일 송조농원(운곡면)에서 도시민 30여명을 초청 농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팜파티를 개최했다.

팜파티는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파티라는 형식을 도입하여 생산자와 고객 간의 만남을 통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이날 열린 팜파티는 송조농원, 계봉농원, 해맞이목장이 함께 참여해 농산물을 시작으로 ▲천연주방세제 및 청국장체험 ▲색소폰연주 ▲캠핑파이어 ▲가래떡 구워먹기 ▲우수 농산물 판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참여 3개 농가는 자체 평가회를 갖고 팜파티의 올바른 이해, 파티음식 개발, 감성마케팅,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송조농원 최재용 대표는 "팜파티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파티라는 문화를 접목한 분야인데 능가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 농업기술센터는 단순히 농촌관광이나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네트워킹을 통한 안정적인 콘텐츠를 개발 단합된 체험, 음식, 관광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내년 예산안 428.8조 확정... 올해 대비 7.1% ↑

2009년 이후 증가폭 가장 커... 정부안 대비 복지 1.5조 ↓, SOC 13조 ↑

신립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신립청(청장 김재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립청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10점 만점에 8.11점으로 지난해보다 0.04점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 평균(7.70점)보다 0.41점 높다.

산립청은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사무평가제(Clean-Call),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부패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5시간), 청탁금지법 준수서약 및 순회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율실천에 기반한 자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산립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모든 직원이 부패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산립청이 더욱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신립청(청장 김재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립청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10점 만점에 8.11점으로 지난해보다 0.04점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 평균(7.70점)보다 0.41점 높다.

산립청은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사무평가제(Clean-Call),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부패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5시간), 청탁금지법 준수서약 및 순회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율실천에 기반한 자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산립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모든 직원이 부패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산립청이 더욱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보령시, 충남나눔리더 11명 단체가입...기부문화도 만세

'만세보령' 6일 순회모금행사에서 지역기부자 나눔리더 가입식



충남 보령시 지역내 개인기부자 11명이 6일 충남공동모금회 보령시 순회모금행사에서 '충남 나눔리더'에 단체로 가입했다.

충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10인 이상이 나눔리더로 단체 가입을 한 사례로 지난 부여군의원 전원을 포함한 지역기부자 16명이

단체 가입한 이후로 두 번째다.

'나눔리더'는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뜻하며, 1년내 100만 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일시기부 또는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인증패를 전달한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나눔리더' 가입을 모집

하고 있으며, 나눔리더 기부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이날 보령에서 나눔리더에 가입한 11명은 김봉갑(보령시청행정지원팀장), 문광수(사영업), 임기현(해오름광고기획), 김미경(숨노래방), 정우진(우진집구대표), 박종혁(담구지컨설팅), 권혁영(보창레미콘), 백경호(삼성전자대리점), 박종광(박종광한의원), 김성기(자유전자음향), 김봉권(디지털정보대표)이다.

충남공동모금회 이관형 회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몸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보령시민 서로를 위한 따뜻한 온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주신 나눔리더에게 감사하며, 기부를 통한 행복이 보령시 관내에 가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2017 내고향 물해설가 특강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학생 및 지역농민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이상선)는 7세 유치부에서부터 학생 및 지역농민을 대상으로 2017년 내고향 물해설가 특강을 실시했다.

내고향 물해설가 특강은 청양 어린이집, 남양초, 청양초, 청양고등학교, 지역농민들까지 다양한 세대층에 물의 소중함과 공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가뭄과 수질오염이 심각해

지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소중한 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육했다.

특히, 12월 6일 청양고등학교에서의 특강은 물 해설과 아울러 청양지사장의 공사 소개와 취업,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강의가 함께 실시하여 졸업생이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청양=정성범기자

'친구맺기 대면식' 통해 고독사 예방 나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동장 백준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진호)와 맞춤형 복지팀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친구야 반갑다' 대면식을 6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실직, 알코올 중독,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이 위기상황 발생 시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데 주목해 이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고, 생활정보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날 11명의 신청자와 협의체 위원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차례 만남을 통해 좀 더 친밀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어렵지만 친구와 함께 가능한 일들을 찾도록 계획했다.

안진호 위원장은 "오늘 대면식은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며, 앞으로 협의체는 신청자들이 서로의 친구가 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월드바리스타 '폴바셋' 초청

롯데백화점 대전점, 누적 방문고객 10만명 돌파

롯데백화점 대전점 1층에 자리한 커피전문점 폴바셋이 백화점 소풍객들과 우리지역 커피 애호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월 1일 오픈한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폴바셋은 일평균 1천여명의 고객을 꾸준히 유치해 누적 방문고객이 10만명을 넘어 서며 우리지역의 인기 커피 전문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월드바리스타 챔피언 '폴바셋'을 초청해 사인회와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9일 오후 6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되는 폴바셋 초청

이벤트는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누적 방문고객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김윤중 점장은 "우리 매장을 방문해 주시고 커피를 즐기시는 고객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번 초청 이벤트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객님이 즐거운 경험과 기억에 남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소방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기탁



서천소방서, '1사촌 119안전나눔' 행사 열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지부,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행사 거행

세 번째 성화 봉송한 소방관 화제

청양소방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 예산장비팀장으로 근무하는 정영찬 소방경(45, 사진이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 이어 세 번째로 충남의 첫 번째 성화관문인 부여에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화제다.

홍성경찰서, 112신고 전년 보다 줄어

올해 들어 홍성군 지역에서 접수된 112신고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접수된 112신고가 총 19,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01건에 비해 1,657건(7.9%) 줄었다고 밝혔다.

예산소방서, 겨울철 축사화재 주의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최근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축사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장의 과다한 전기 사용과 부주의, 비위생적인 농장 운영과 초과 전기사용,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위 등 축사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3천628억원 적발

무역 악용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 위해 특별단속 결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하였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금년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하여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단속 효과가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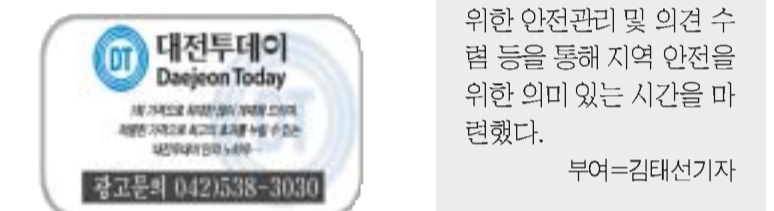
부여소방서, 겨울철 재난 대비소방안전협의회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소방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협의회는 겨울철 화재취약 시기를 맞아 화재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재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여여군과 농협 부여군지회 및 각 지역농협 조합장 등 13개 기관·단체에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설명 및 협조사항 안내 ▲부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협조 요청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덕구 40년 주민 숙원사업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본격화

내년도 실시 설계비로 책정된 국비 8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예산 반영으로 대덕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40여년 간 큰 불편을 주었던 신탄진 인입선(차량용합기술단 인입선) 이설과 비용 중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책정된 국비 8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 차량의 정비를 위해 차량용합기술단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 1979년 부설된 신탄진 인입선로는 전국 도심 내 인입선로 7곳 중 유일하게 도로를 교차해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그동안 이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곳이다.

아산소방서, 노인 요양시설 화재예방 당부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각별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은 지적 장애가 곤란한 수용인원이 많은 데 반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관계법령이 2015년 6월 30일 개정 때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소문설비설치의 의무가 됐다.



서산소방서, (주)동남 서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운)는 지난 5일 (주)동남 서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기취급 증가로 화재 피해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회사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장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다매체 119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초기대응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실습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등 문화 차이로 인해 재난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덕대, 2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2위 선정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전문대학 교육서비스업 부문
질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미국 미시간 대학의 국가품질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해 학생이 직접 평가한 만족수준의 정도를 모델링에 근거하여 측정, 계량화한 지표이다.
국내 21개 전문대학 6,658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4/4분기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대덕대는 총점 78점(전년대 평균 6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덕대는 "Client first(학생을 최고로 섬기는 대학)의 핵심가치에 조정을 맞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전소년원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협조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소년원(원장 오영희)은 지난 5일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총장 홍승용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개발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전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인성함양을 위한 활동치료 프

“기업 5곳 중 2곳, 비공개 채용 조건 있다”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관내 20여명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참석

<사람인>조사결과... 비공개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조건은 ‘나이’

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 채용 시 공개에는 밝히지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239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 조건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8%가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채용 조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39.5%), 대기업(36.4%) 순이었다.

비공개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조건은 ‘나이’(49%, 복수응답)였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나이는 남성의 경우 평균 32세, 여성의 경우 30세였다.

다음으로는 ‘성별’(29%), ‘거주지역’(27%), ‘전공’(23%), ‘결혼 여부’(20%), ‘인턴 등 경험’(19%), ‘자격증’(19%), ‘외모’(18%), ‘학력’(14%), ‘군필 여부’(11%), ‘학벌’(9%), ‘학점’(7%), ‘어학성적’(6%), ‘종교’(5%), ‘주방’(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비공개 자격 조건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평균 42.6%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비공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탈락된 비율도 평균 41.5%에 달했다.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 조건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5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내부적 인재 선발 기준이라서’(27%),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26%), ‘밝힐 필요가 없어서’(25%),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5%),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2%) 등을 들었다.

한편, 신입 채용 공고에 명시하는 우대 조건은 ‘자격증’(39.7%,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턴 등 경험’(36.4%), ‘전공’(32.5%), ‘거주지역’(23.8%), ‘어학 성적’(14.6%), ‘학력’(8.6%), ‘나이’(7.3%), ‘성별’(6%)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입민족 팀장은 “비공개 평가 조건 중 상위를 차지한 항목들을 보면, 나이, 성별, 거주지역과 같이 직무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조건들이다. 이들 조건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최대한 배제하고, 직무 이해도나 관련 경험, 적성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뽑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중)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5일 제1교육실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를 실시했다. 관내 20여명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참석한 이번 원예치료 연수는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접시안의 작은 정원인 디쉬가든과 생화로 꾸미는 리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황연중 교육장은 “특수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함께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특수교육 보조인력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홍성 내포유치원, 바른 칫솔질 교육 실시 내포유치원(원장 장경옥)이 지난 5일 본원 꿈누리실에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바른 칫솔질 교육과 물소겔 도포를 실시했다. 홍성군 보건소와 혜전대학교 치위생학과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바른 칫솔질 교육 및 물소겔 도포는 충치 발생율이 높은 유아들의 올바른 칫솔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청양 청송초, 작가와의 만남 행사 실시



청송초등학교(교장 황화연)는 지난 5일 3·4학년반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할머니, 어디가요?’ 시리즈, ‘상추씨’ 등으로 유명한 ‘조혜란 작가’가 청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기,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동화책 인형극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책을 쓴 작가와 직접 만난 것을 신기해하며, 그림책을 집중해서 보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예산여고, 식생활교육관(급식실) 개관식

“이제 쾌적한 공간에서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해요!”



예산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옥태는 지난 5일(화) 15:00부터 약 세 시간에 걸쳐 김지철 총남교육감, 황선봉 예산군수 등 각계 인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생활 교육관(급식실) 개관식을 가졌다.

식생활 교육관은 2016년도 3월 16일 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29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8월 14일에 준공했다. 총 규모는 877.02㎡이며, 1층 식생활 교육관은 447.94㎡, 2층은 다목적 교실로 404.26㎡, 반지하가 248.2㎡에 해당한다. 이 공사에는 교육부 특별 보조금 14억 1

천 4백만원과 예산군 대응 투자 지원금 3억이 투입되었다. 또한 학교 자체 예산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2층 다목적 교실에 등용반, 예지아카데미 등 학습 및 토론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력증진에 노력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철 총남교육감, 심장근 예산교육장, 황선봉 예산군수, 권국상 군의회 의장, 강재석 군의회 부의장, 이진자 총동장회장, 예산읍내 각급 학교장, 동문,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교육청,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

예방·방지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겨울철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개인위생수칙을 안내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는 비말 전파를 통해 감염되며, 고열(38~40°C),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이고,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의 유행방지와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기침을 할

때에는 옷소매 및 휴지로 가리고 손으로는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며,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라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아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대전교육청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학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중학교 예비학부모 권역별 설명회’ 성료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대상...2018 세종자유학기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1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께해요, 2018 세종자유학기제! 중학교 예비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중학교 입학에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세종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관내 43개 초등학교를 3개 초지원대동초, 연양초, 새뜸초)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편한 늦은 오후시간대에 펼쳐진 이번 설명회에는, 약 500여 명의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유학기제(년제)에 대한 정책 설명과 2018학년도 세종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세종=이정복기자

201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진단·평가

천안교육지원청,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위해 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목)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18학년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총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치료지원 진단·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인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장애를 교정하고 더불어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2018학년도 치료지원 대상자는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물리·작업·언어치료 중 한 가지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 특수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표, 언어치료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치료지원 진단·평가 팀이 검사 실시 및 동행서류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와 영역을 결정하게 된다.

천안=채기병기자

2018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수

아산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등 130명 대상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지난 5일,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등 130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수]를 실시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평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실태를 반영한 새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업무 담

당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과 2018 충남교육청의 주요 업무 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수립,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위한 과정 등에 대해서 실제 학교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산=리랑주기자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림복지진흥원, 2017년 전문업·제공자 공동연수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5~6일까지 경북영주시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복지전문업·제공자 및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산림복지전문업·서비스제공자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복지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 우수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산림청과 진흥원 관계자는 산림

복지제도 정책방향과 산림복지서비스 등록제도 주요 실적 및 추진계획, 전문업·제공자의 우수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참가자들은 우수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시연 및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제공자의 안정적인 민간시장 진출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납부·관리’ 및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지난 5일 관내 70여명의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들의 취학전 고민해결을 위한 “2018학년도 취학전 입학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양환경 유관기관업무협약체결식



안희정 충남도지사= 7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해양환경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2017 충남교육정책 포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7일 오전 2시 덕산 리솜스파에서 열리는 '충남 지역 산학협력 강화 연합 워크숍'에 참석, 오후 3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 충남교육정책 포럼'에 참석.

크리스마스별 성금 전달식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7일 오전 10시 교육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리는 '2017년 크리스마스별 성금 전달식'에 참석.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김석훈 홍성군수= 7일 오전 10시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특강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7일 오후 3시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에서 '지방의회 소개 및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특강.

2017 공시지가 업무담당 워크숍

충남도는 6일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공시지가 업무담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 분석, 소유자의견 청취 및 주민상당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과 태양광발전소 조사, 농경지 '경작여건' 조사명문화, 공시지 확보구역 조사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접 시·도와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유지에 힘써 지가산정 적으로 인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며, 내년 도내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350여 만 필지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조사는 공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산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군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2018년도 정부예산 본회의 통과

예산군, 지역 최대 현안사업 삼교역사 신설 기초 마련

예산군민이 염원하던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신설이 해결될 전망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신설 추진에 필요한 국비 5억 원이 반영된 2018년도 정부예산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으로서의 지난 11월 30일 장항선 복선전철화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고 이변인 삼교역사 신설 추진에 필요한 국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공들여왔던 현안사업 해결에 성과를 내는 모양새다. 군은 쉽지 않음에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라며 국비 반영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교역사는 2010년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을 때 8개의 역 중 장대신설역으로 분류돼 총사업비 실시계획에 삼교역 신설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충남도청소재지인 삼교역역이 신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군민의 큰 반발을 낳았다.

황선봉 군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신설을 위한 국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하고자 임기 시작부터 정부부처, 국회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삼교역사 신설을 위한 5만 5000여 명의 주민건의서를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의

방문해 군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올해 4월에는 삼교역사 신설부지(7239㎡)의 매입도 완료해 군으로서의 삼교역사 신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군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큰 역할을 했다. 삼교역사신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식 등 10명)와 함께 예산군개발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 시 대군민 서명운동, 대군민 결의, 결의문 채택, 중앙부처·충남도 방문 등으로 하나 된 군민의 모습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또한 이번 예산반영은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원인 홍문표 국회의원이 도움을 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선에는 새마을호보다 1.6배 빠른 준 고속철도가 투입되며, 기존 삼교역~영동포역까지 장항선 철도를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걸리는 소요시간이 서해선, 신안산선과 연계하면 신설 삼교역~영동포역까지 50여 분 정도로 단축된다.

또한 내포신도시 간 인구 유입 증가 등 조기 활성화 및 인근 지역 신규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여건이 개선돼 주변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과 군 관광지로의 철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고래'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며 "이번 국비 확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민·관·정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2020년 삼교역 신설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해나갈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교역사신설추진위원회와 예산군개발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주민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면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삼교역사가 실제로 신축되고 활성화될 때까지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 서해안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예산군을 비롯 홍성, 당진, 아산, 평택, 화성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조 8280억 원, 연장은 9001km, 8개의 철도역 건설이 추진된다.

2010년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2014년 12월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10개 공구로 나눠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예산=양영업기자



세종시 주한외교사절 초청행사

코트디부아르 대사 등 18개국 41명 외교사절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6일 행복도시 건설 10주년 및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코트디부아르 대사를 단장으로 세계 18개국 41명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세종시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one-day tour to the city of sejong' 행사를 가졌다.

이날 외교사절단은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청사 내 여민실에서 세종시민들과 함께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축하공연을 관람한 뒤 행정도시호물관, 세종정부청사 옥상정원, 대통령기

록관(호수공원) 등 세종시를 상징할만한 주요 시설들을 탐방했다. 특히, 외교사절단은 이날 주요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상을 간접 체험했다.

이날 외교사절단 단장을 맡은 코트디부아르 실베스트르 쿠아시 발레(Silvestre Kouassi Bile) 대사는 "세계 각국에 수도를 이전한 곳이 많지만,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

직 역사가 짧지만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세종시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에게 세종시가 특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고국에 돌아간 후에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세종시에 대하여 오래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 이원재 행복도시 건설시장, 세종시의회 의원,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주한외교 사절단의 세종시 방문을 환영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제12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예산군은 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2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및 2017 예산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소통하는 희망'을 주제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슬로건 아래 황선봉 군수, 권국상 군의회 의장 등 각급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홍보영상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강 및 경품 등의 행사로 펼쳐졌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2017웹진, 사업실적 등을 전시해 사업 성과를 알렸

세종시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명식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 의장과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기업인사총무교류회 등 노사민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기업인사총무교류회 이근우 회장의 '세종시 기업의 청년구인난 및 지역인재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

에 이어 2017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보고, 세종시 노사민정협력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토의내용은 내년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발전 및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보건소 골다공증 조기발견 검사

홍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의 골다공증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골밀도 검사를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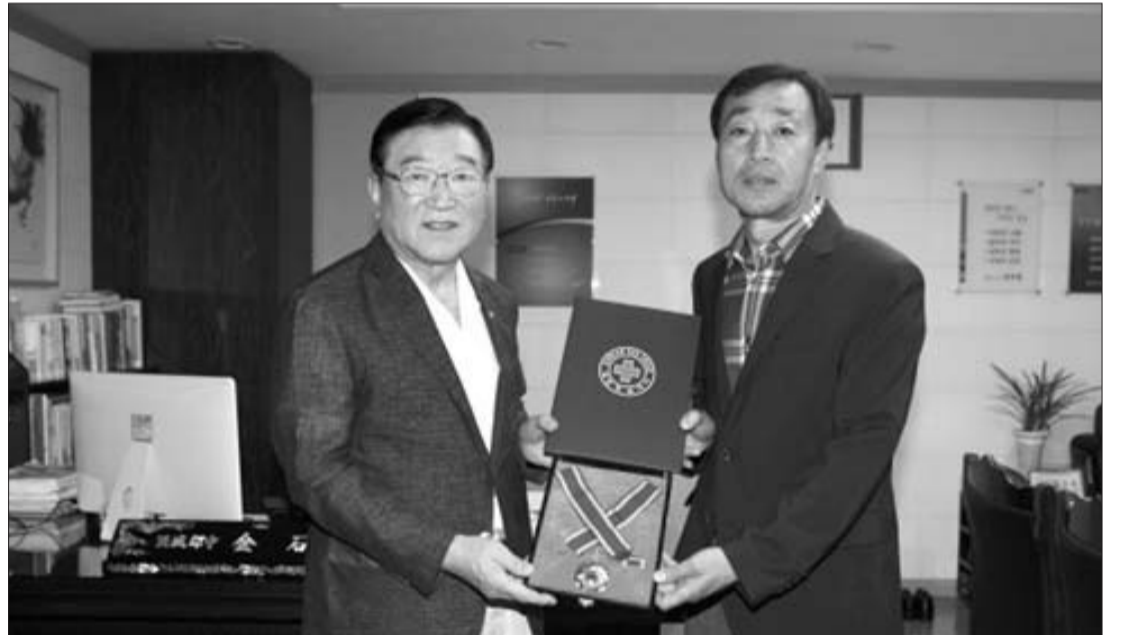
골밀도 검사는 요추와 대퇴골 뼈의 양을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검사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후에는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또한 군민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채용신체검사와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실시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 자 중 수급자와 장애인,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무료이며 문의 및 예약은 보건소 영상의학실(630-9039)로 하면 된다. 홍성=김정환기자



홍성군, 2018년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 전개

4년 연속 1위... 나눔 행복 실천

홍성군은 내년 1월 31일까지 '2018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군에 모금된 회비는 재난 발생 시 국내·국제 재난 구호 활동, 재난구호 교육, 생명보호 활동 등에 지원되며, 평시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꼭 필요한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 군은 2014년부터 군민의 적극

적인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로 4년 연속 충남 도내 모금률 1위(사진)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유공장, 명예장 등을 수상했다.

적십자회비는 지로, 인터넷, 가상계좌, 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모금 대상은 각 세대주(1만원), 개인사업자(3만원 이상), 법인사업자(5만원 이상)이고 단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와 적십자 후원회원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각 읍·면 마을회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충으로 집중 모금기간을 안내하고 각종 회의와 이장 및 마을 분담 직원을 통한 납부 확인·촉진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성숙한 주민 의식을 가지고 모금 운동에 앞장서 나눔 문화 정착·확산의 선두주자가 돼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2018 행복청 예산 2910억 원 확정

입주민 인정적 정착·자족기능 확보 위한예산 중점적 편성

2018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 예산이 정부안 2817억원 대비 93억원 증액된 29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예산을 포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점적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행복청 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3125억원 대비 6.9% 감소하였으나,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준비비', '조치원 우회도로', '회대IC 연결도로', '청소년 복지시설(중·고교) 교육원', '나성동2-4(8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사업규모 조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아트센터 공사비',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시설 설계비' 등 주요 중점사업 예산도 반영되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2개 사업 94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도시건설 일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별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비(120억원) 및 이전공무원, 청사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비(311억원)가 반영되었고,

주요 공공·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9개 광역도로(1342억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원), 선관위·세무서·

경찰서 청사(189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157억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원), 청소년 복지시설(6억원)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원), 산학연협력센터 지원센터 완공소요(90억원) 등도 반영되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요한 신규 사업 및 장기간 지연사업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도시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아산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

아산시(시장 박기왕)는 5일, 아산시이주노동자센터(소장 우삼엽)가 주최해 개최한 2017년 아산 이주민 인권문화 축제인 '마실'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아산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작된 모범 외국인 근로자 표창 수여는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시는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산의 외국인노동자센터(이사장 신인석)에서 추천한 노동자 중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적극 기여하며,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적극적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외국인 노동자 15명을 선발해 이번에 표창 수여를 했다.

표창 대상자는 ▲루슬란(키르기스스탄, ㈜세림박스) ▲구름양(바하루네발, ㈜중문화성사) ▲구름양(베네팔, ㈜푸르온) ▲뉴엔딘트(베트남, ㈜에스아이) ▲뉴엔반(베트남, ㈜신생사) ▲뉴엔바(베트남, ㈜제이에스케이) ▲을지(몽골, ㈜에스디) ▲천재(몽골, ㈜포인트엔지니어링) ▲강종(몽골, ㈜삼우아산) ▲난티타(태국, ㈜운스레스) ▲우티(태국, 인성엔지니어) ▲알반조르지(오제이알(필리핀, ㈜다우기업) ▲큐토게데(필리핀, ㈜세리퀸) ▲이상철(중국, ㈜유성기업) ▲염정수(중국, ㈜계림농장) 등 15명이다.

오세현 부시장은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그 역할 또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우삼엽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박기왕 아산시장님과 시 관계자 및 소속 외국인노동자들을 시상식에 참여토록 배려해 주시고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외국인노동자 소속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6차 산업화 추진상황 최종 점검

당진아궁이 마을, 6차 산업화 자체 환류 워크숍 열려



당진시는 3층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궁이 마을 고구마 6차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올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환류 워크숍을 5일부터 6일까지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 세미나룸에서 개최했다.

아궁이 마을은 당진시 송산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63명의 농업인들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인 고구마를 활용한 6차 산업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들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6차 산업화 전략 수립과 사업 참여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향토자원과 연계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궁이 마을의 6차 산업 핵심사업은 660㎡의 고구마세척 가공장을 신축해 당진에서 가장 맛있는 고구마를 깨끗이 세척·선별해 출하하는 것으로 세척 가공장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고구마를 이용해 고구마 스틱과 밧탕을 만들어 학교급식과 식자재 업체에 유통할 계획으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원물확보와 가공설비 부문의 대해 전문기술을 초빙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인 고구마 '스틱'은 전분을 함유한 식품을 기름에 튀겨 삶았거나 소금, 시럽을 첨가한 조리 음식으로 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아궁이 마을에서는 휴게소나 놀이공원, 유원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아궁이 마을은 2015년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인 두레기업창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조합원 출자 2억 원과 시비 3억 원, 국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가공장 준공과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청양군 장평면, 구기자·밤·콩·참기름 등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규)은 지난 5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구기자를 비롯한 밤, 콩, 참기름과 각종 나물을 판매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장평의 대표 직거래 장터로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품과 청정 청양을 홍보하는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임직이조의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우수한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몰려 택배신청 포함 2300여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청양=정성범기자

'유류피해 10년' 희망 안고 미래로 GO GO

태안군, 아픔 딛고 전 국민과 함께 회복에 총력... 자원봉사 희망 성지로 '우뚝'

지난 2007년, 태안군 앞바다를 걷게 되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사고가 오늘(7일)로 10주년을 맞이한다.

태안 유류피해 사고는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당시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원유는 기존 해상 기름 유출 최대 규모인 1995년 시프린스호 유조선 좌초 사건보다 무려 2.5배 많은 총 1만 2547㎥ 규모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123만 자원봉사자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군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태안은 사고발생 한 달 만인 2008년 1월 1차 해상방제를 끝내고, 같은 해 10월 도서지역의 해양방제까지 마무리하며 11개월 간 4.175㎥의 폐유와 3만 2074톤의 흡착제기물을 수거해냈다.

사고 당시 태안은 해역 내 용존 산소량이 크게 줄어들어 공식적으로 총 361개소 4,088ha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던 태안군의 관광객 수도 사고 직후인 2008년에 485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태안이 입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태안군은 좌절을 딛고 국민들의 성원 속에 다시 일어나 복



원에 힘을 모았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떠난 후에도 잔여 폐유를 수거하고 해안가의 각종 오염물을 치우며 삶의 터전인 바다의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에서도 지난 2009년 '특별해 환경복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총 519억 원을 투입해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 사업, 종도발생장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정 태안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으며,

관광객들이 태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태안투어패스·태안시티

투어·코레일 기차여행과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태안군은 검은 기름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며, 지난 2016년 1월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자연상태'임을 뜻하는 '국립공원' 지정의 쾌거를 달성하고, 2017년 5월에는 세계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군 전체를 슬로시티로 지정받아 지난 5월 선포식을 갖는 등 태안의 자연이 완전히 회복됐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유류피해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만리포 일원에서 열린 유

류피해 1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극복과정을 오래 되새기는 한편,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력과 자원봉사의 위대함을 미래의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은 기름유출 피해 배·보상 등 사고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태안이 '희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성지' 상징탑 및 자원봉사 교육관 건립 등 후속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7일부터 13일까지 태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일)와 손잡고 포항시에 '사랑의 반차'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 "지난 10년 간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낸 군민들과 한마음으로 태안을 도와주신 전 국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어렵게 되찾은 생명의 바다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유네스코 각국 정부대표 제주도서 '이영차'

유네스코 제12차 정부간위원회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시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인 기지시줄다리기가 제주 도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각국 정부대표

들과 함께 줄을 다리는 특별한 시연행사를 가졌다.

지난 5일 오후에 개최된 줄다리기 시연행사에는 300여 명의 정부 대표와 NGO가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줄다리를 공동 등재한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대표도 함께 줄을 당겼다.

특히 시연행사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연을 위해 특별 제작된 줄다리를 당기고 흥겨운 농악에 리듬을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는 이번 시연행사가 유네스코 등재 종목인 기지시줄다리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농가별 맨투맨 컨설팅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맨투맨 컨설팅을 실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월 27일 1차 컨설팅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2차 컨설팅에서는 소규모 사육농가 중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0농가를 대상으로 건축사와 농가 간 1:1 상담을 통해 적법화

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계자는 "현황측량이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즉시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940-2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전국 최고 수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태안군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태안군은 지난 4일 태안군청 군

카드 발급관리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이 내년부터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급여·생활보조금·건강생활수당 등 3종 수당 중 건강생활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태안군에서는 이달 현재 130명의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군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3종 수당 모두를 내년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지난 9월 결정했다.

태안군 보훈의료카드에는 관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

활수당 명목으로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프트 카드로, 병·의원 과 약국, 한약방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태안군 내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의료카드 발급 및 관리, 대금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카드는 매년 갱신해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건강생활수당 외에도 내년 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에 월 8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태안=김정환기자

동정

이색 봉송 행사

김흥장 당진시장 = 7일 오후 12시 30분 당진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대회 성화봉송 축하행사와 이색 봉송 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이종윤 당진시의장 = 7일 오후 3시 30분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기연주회

한상기 태안군수 = 7일 오후 7시 30분 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

업무협약

이석화 청양군수 = 7일 오전 10시 30분 군수실에서 청양나래무인항공기술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아산서부신협-도고면 후원협약체결

아산서부신협총조합이사장 김한규)이 지난 5일, 도고면 행복기움추진단장장 이용인과 어려운 이웃의 복지향상을 위한 후원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수매트 2개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서부신협총조합은 도고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시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사랑 나눔 실천을 약속했다.

김한규 이사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고면 행복기움추진단과 협력해 꾸준히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인 단장은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연계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도고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호응' 속 마무리

논산시, 문화재청 대표적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인기'



대기오염 집중 관리체계 구축 박차

부여군,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건강환경 조성 강화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부여군 대기오염 측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추진, 올해 3월말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달 8천여명이 투입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6월부터 상시로 대기환경을 조사하여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korea.or.kr)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군민 누구나 대기오염상태를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부여읍 전광판에 표시시켜 환경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앞으로 대기오염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대기오염의 최대 피해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13개소)과 실외놀이터(23개소) 등 36개소에 대한 환경유해성 진단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00대, 96,000천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4대, 88,000천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대, 12,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한해 주택지원사업 11개소와 경로당 태양광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지자체의 한계가 있다"며 "부여군은 올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환경유해인자 측정 등 기초정보를 확보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대학 265명 학사모 썼어요"

부여군, 총 265명 어르신 수료식 가져

부여군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노인대학 수료식이 흥산과 임천노인대학에서 열렸다.

지난 5일 열린 흥산노인대학 수료식은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회장 민병시) 부설 흥산노인대학(학장 백복현) 주관으로 노인회와 노인대학 임원, 수료생 및 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3월 입학 이후 9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155명(남 28명, 여 127명)의 어르신들이 학사모의 주인공이 됐으며, 배움의 장에서 화합과 자긍심, 봉사정신을 보여주며 모범적인 자세로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지난 6일 임천노인대학 수료식에서는 110명(남19명, 여 91명)의 어르신들이 수료해 총 265명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배출했다.

노인대학은 매년 3~11월 노래교실, 국내외정세, 일반상식, 건강체조 및 지도, 예절지도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교육,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뜨거운 한해를 보낸 어르신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사회를 이끌어 왔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달라"며 "오늘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부여노인대학에서는 213명(남30명, 여183명)의 어르신들이 학사모를 쓰고 노인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부여=이정복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역 내 내재된 문화재를 통해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교육·답사·체험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 활용 및 개발을 위해 문화재청에 공모한 '2017 문화재 활용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7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서원·향교 활용사업에 2개 사업,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에 2개 사업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문암서원, 연산향교, 명재고택, 강경 일원에서 ▲종류가 있는 아가페미 ▲토요성리학 ▲전통성년식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다' ▲대한민국 광복이야기 ▲다같이 돌아, 강경 한바퀴 ▲고택,매력에 취하다 등 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통 성년식 프로그램은



2016년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여전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 성년례는 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로 각 학교의 모든 성년 대상자가 의례의 주축이 돼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간성 복원의 첫걸

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예식이다.

관내 4개 고등학교(논산고, 강경고, 연무고, 건양고) 총 4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성년례는 연산향교 유림 어른선생들과 성년자 다짐반기, 성년선서, 가족배례 등 성인으로서 긍지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내 내재된 문화재를 교육·체험·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나 향토문화거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예학의 도시인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에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만들기사업 2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2개, 전통산사문화재사업 1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2만7000천원, 도비 1만2750천원을 확보했다.

계룡·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협력

지난 5일,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참석 논의

국방도시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계룡·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다변화를 추구한다.

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선정된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3군분부가 위치한 국방도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연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지난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계룡시가

국방의 중추시설인 3군분부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군수사령부, 국방벤처단지 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제시하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시설 중심의 국방연구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넓은 면적 확보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논산시는 제조업체 중심의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국가차원의 대전-계룡-논산 국방산업벨트를 주장했다.

시는 국방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계룡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며 국방수도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목 시장은 "여기에 전력자원 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충남 국방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충남도, 논산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계룡, 논산 일원에 약 100만㎡ 규모로 조성예정인 전력자원체계(비무기체계)가 주력 품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19년까지 국방 국가산단지 지정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원성동 고추전·충무로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된다

환경부 공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돼 국비 138억 확보



천안시는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를 당했던 원성동 고추전과 충무로 일원이 환경부가 공모하는 2017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원성동 고추전과 충무로 일원은 원성천과 삼룡천이 합류되는 저지대로 우천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돼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올 7월과 8월 시간당 강우량 7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가옥과 상가가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하는 등 전형적인 저지대의 호우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시는 그동안 상습침수구역 해소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실사 시에는 하천의 합류상황과 지반여건, 반지하 건축물현황, 피해주민의 생생한 인터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총사업비 277억원 중 국비 138억원을 확보했다.

천안=채기병기자

노박래 서천군수 송년 기자간담회 가져

노박래 서천군수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노 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뒤돌아 보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군수는 지난 성과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31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정상개도 진입과 그동안 군민의 염원인 군 신청사 부지를 옛 서천역 주변으로 확정하는 등 취임 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를 마련한 점을 꼽았다.

이어 군은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288억원을 확보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과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민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운영, 나눔문화 확산, 교육 인프라 확충,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시니어

클럽 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항국가산단 활성화 및 우량기업 유치(8개사, 57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254억원) 및 서천·장항 하수관거정비사업(13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950억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억원), 판교다목적 옹수개발(480억원), 해양문화관광지 조성(83억원) 등 다수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노 군수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의료·교육서비스 지원 강화 ▲삶의 여유와 테마 관광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도시 건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노 군수는 "서천은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정

통합보고대회

구본영 천안시장= 7일 오후 2시 동면 송연리 108-5번지 일원에서 열리는 동부바이오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

로개설공사 착공식에 참석, 오후 3시 30분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서 개최되는 천안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통합보고대회에 참석.

민자차발표회

최홍목 계룡시장= 7일, 오전 11시 시청 상항실에서 열리는 애항장학회 이사회 참석, 오후 2시 금암동에서 열리는 금암동 주민자치발표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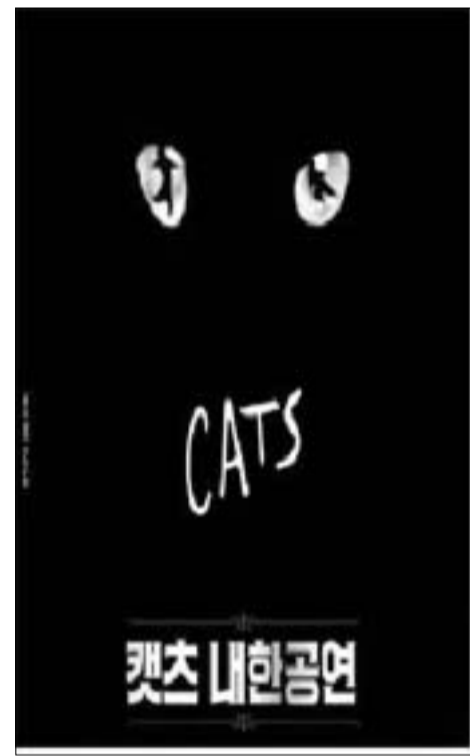
송년의 밤

노박래 서천군수= 7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사랑나누리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2시 문예의전당

에서 열리는 2017년 서천군 맞춤 일자리 한마당에 참석, 오후 7시 엠블레스컨벤션에서 열리는 재인양 서천군 민회 송년의 밤에 참석.

혁신포럼

이용우 부여군수= 7일 오후 2시 부여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축제발전 및 혁신포럼에 참석.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팀 천안에 오다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팀이 오는 8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버전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로 12월 8~10일까지 3일간 총 5회 공연으로 천안 관객을 맞이한다.

더욱 역동적이고 파워풀해진 군무, 각 고양이 캐릭터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분장과 의상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뮤지컬 <캣츠>는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9천 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7300만 명이 관람한 명작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의 원작을 황상적인 무대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토니상 7개 부문 포함, 올리비에, 그라미 등 전세계 메이저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불멸의 명곡 '메모리(Memory)'로도 유명하다.

공연시간은 12월 8일 19:30 / 9일 14:00, 19:00 / 10일 14:00, 19:00이며, 티켓 가격은 엘리클릭 150,000원 / VIP석 150,000원 / R석 120,000원 / S석 90,000원 / A석 60,000원이며, 러닝 타임은 160분(인터미션 20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ma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천안=이봉호기자

동정

2017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오시덕 공주시장은 7일 오후 2시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는 2017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제12회 은빛축제 한마당



김동일 보령시장은 7일 오전 10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은빛축제 한마당, 오후 1시 시청상황실에서 열리는 강일코스팜(주)와 3개 기업과의 MOU,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보령해삼 특구 지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오후 6시 30분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연찬회 참석.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7일 오전 9시 4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현대위아 드림카 시니어클럽 전달식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충남에덴컨벤션에서 열리는 2017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시청상황실에서 열리는 동진파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후 6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및 지역축하행사에 참석.

복지허브화 지역 차량 배차로 보령시 맞춤형 복지 활성화 기대

보령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배차,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촘촘한 복지서비스 시행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국비(복권기금) 8860만원, 환경부 보조금 8400만원, 시비 8860만원 등 모두 2억6120만원 투입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10대를 구입했다. 배정 지역은 지난달 3일 웅천읍과 남포면, 주교면 미산면 등 4개 지역에 가솔린차량 보급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오천면과 주포면, 주산면, 대천1동, 대천4동, 대천5동 등 6개 지역에 전기차가 배부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권역형으로 주교면(오천, 주포)과 남포면(대천5동), 기본형 대천4동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권역형 웅천읍(미산, 주산), 기본형에 대천1동 등 모두 5개 허브화 읍면동을 지정했다. 특히, 기존 복지서비스가 신청·접수된 저소득 대상자의 상담과 사례 대상자에 한해 실태조사 및 가문·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연계했다. 이번 복지허브화는 빈곤, 질병, 일자리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나 이·동장, 주민자치위원, 복지반장 등과 협력하여 보이지 않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찾는 역할까지 더해지게 됐다.

차량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 시행 중인 강진숙 대천4동장은 "이번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기능성이 높아져 복지공무원이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긴급 및 물품 지원 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 대한사격연맹 감사패 받아

최신식 시스템 갖춘 종합사격장 건립 등 스포츠 사격 발전 기여

이완섭 시장이 스포츠 사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사격연맹(회장 황용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산시에 따르면 대한사격연맹 장갑석 실무 부회장이 5일 서산시를 직접 방문해 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사격연맹은 사격 종목운동 보급과 우수한 사격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로 국내의 사격종목을 소관한다.

연맹은 감사패를 통해 "종합사격장 건립 지원 등 스포츠 사격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우수 선수 육성에 기여한 데 대해 사격인들의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산시의 대표 직장에



육입인 사격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인기 종목인 스포츠 사격의 저변 확대와 사격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62억원을 들여 57사대 1600㎡ 규모의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훈련 전용 서산시 종합사격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4억원을 들여 사격팀 전용 합숙소를 마련하는 등 직장체육

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직장체육팀 전용 체력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지역 체육인재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서산여중과 서산고에 체육인재 육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서산시 사격팀(감독 박진영)은 올해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모두 48개의 메달을 따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사격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서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서산시가 국내 최고의 사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과 엘리트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장항선 복선전철로 서해안시대 주도하게 될 것”

보령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 궤도에 올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편, 다가올 서해안 시대 보령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구체화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30일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기존 장항선은 충청남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인데도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다철기관차로 운행되는 저속철도인 상황이었으며, 천안부터 아산 신창구간은 지난 2008년 완료됐고, 익산부터

대야 구간은 오는 2022년 복선 완료 예정으로, 누락 구간이었던 신창과 대야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비 7915억 원이 투입돼 충남 아산 신창부터 전북 익산 대야까지 118.6km 구간으로 추진될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신창부터 보령 웅천까지 78.7km 구간은 복선전철로 건설하고, 웅천부터 대야 39.9km구간의 단선 전철화 방식을 향후 국토부 내부설계 변경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구간을 고속복선 전철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에 운행되는 열차도 기존 새마을 열차나 KTX 고속열차 보다 승차감과 편리성이 향상된 신형 동력분산식 고속

차량 열차로, 속력이 현행 70km/h에서 150~180km/h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서울에서 보령까지 통행 시간이 2시간 5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1시간 40분이나 대폭 단축된다.

앞서 김동일 시장은 지역국회의원 김태홍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관계자들을 만나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를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예산결산특별위 소위 어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내년도 실시실계비 50억 원(국비)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해왔다.

보령=김태선 기자



2017년 농촌지원사업 종합평가

금산군농기센터 우수기관표창

금산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7년 농촌지원사업 종합평가' 6차 산업 성과확산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농촌진흥청이 지속적인 6차 산업 확산을 위해 생산·제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1·2·3차 산업을 연계한 성과를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결과다. 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농업특성화 및 6차 산업 수익모델 구축은 물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산물 가공센터,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등을 연계 6차 산업 화용·복합 활성화에 전념해왔다.

특히 깻잎, 인삼에 글로벌라 적용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높였으며 새싹인삼을 만인산농협과 연계 유통판매망을 만들었다.

금산 약초 깻잎요리교육을 대전 힐플러스 문화센터와 파트너십을 구축 소비촉진 및 대중화 보급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 명인방 투어와 연계 농촌체험관광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6차 산업 성과 확산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공주시 수도사용량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시범 운영

육안검침에 따른 요금 민원·사생활 침해 등 논란 해소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선진 수도행정 시스템 실현으로 요금 민원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 해소를 위해 수도사용량 무선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전자식 표시기, 기간통신망을 통해 사용량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검침원의 주

택 방문없이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우선 주택 내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다가구 주택 3곳을 선정해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되면 검침원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육안검침에 따른 요금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는 등 수용가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욱 수도과장은 "일정기간 시범운영으로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의 안정성과 무선원격검침 데이터와 현장 검침 데이터를 비교하고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 8일 세계유산도시 공주입성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화가 지난 달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국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에 입성한다고 밝혔다.

성화는 8일 공주보를 출발해 찬란했던 웅진백제의 역사기슭을 지나 공주시청, 석정리박물관, 신관동 등을 찾는다.

마지막 종착지인 공산성 주차장까지 공주에서 11.4km를 달려며 공주시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저녁 6시에는 성화의 종착지인 공산성 주차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 봉송 축하행사가 열린다.

종말단 길놀이로 시작되는 '공주의 열림, 환영의 노래, 염원의 춤'이라는 주제로 웅진백제무용단의 깃발무, 공주시립합창단의 파파라 공연, 퓨전사물놀이패와 비보이 공연 등이 펼쳐지며, 공주시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행사장의 성화에 점화하면서 축하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공주시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정혜원 팀장은 "성화 봉송 행사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고조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랑스러운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외에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 방문교육 호응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방문교육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육아문제나 교통불편으로 센터의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는 단계별 한국어교육 서비스(10개월)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서비스(5개월)를, 자녀 교육(10개월)대상으로는 인지·자아·정서 역량강화를 돕는다.

방문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많이 알게 됐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가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 항상 가족처럼 옆에서 도와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입학전에 한글을 익힐 수 있어 너무 좋았는데 좀 더 공부할 수는 없는지 등 방문교육에 대한 고마움을 표사했다.

센터 관계자는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과 센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말했다.

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은 041)750-3990 / 이메일 rainbow3990@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공주시, 올해의 클린지킴이 선정 표창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자긍심 고취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5일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의 클린지킴이'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환경미화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의 클린지킴이로 이영희 씨, 강영식 씨, 온재창 씨가 선정됐다.

오시덕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올해의 클린지킴이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표창은 그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매년 클린지킴이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은 많은 바 환경미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청소사각지대 환경정화 활동 및 독거노인가정 등 방문청결의 날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도와드리는 등 쓰레기 없는 쾌적한 공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상호회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주=정성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피시스터즈 (SBS오전 8시20분)



축발집에서의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후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은 예은을 내쫓고, 오갈데 없어진 예은은 진섭에게 전화를 걸지만 진섭은 화영과의 사랑을 나누는데 집중하느라 예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예은은 밤새 추위에 떨며 구슬픈 눈물을 흘리는데...

▲전생에 웬수들 (MBC오후 7시15분)

그여 잘 찾아야 아빠를 만날 수 있겠지! 고야 최윤영은 산들에게 나라를 찾는 이유를 털

어놓는다. 아빠에게서 받은 게 있다는데... 한편 나라를 찾는다는 귀국 당일 이후 처음으로 남편, 태평(한진희)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미워도 사랑해 (KBS1 오후 8시20분)



명조(고병완)의 정체를 알게 된 인경(윤지유)은 혼란에 빠진다. 한편, 핏길에 가슴을 한 석표(이성열)는 부일꾼이 되어 길거리에 홀로 남겨지고, 은조(표예진)는 그런 석표를 찾아 나서는 데...

케이블 영화

▲다이아드 4.0 (OCN 오후 7시20분)

전세계를 휩쓸어버린 디지털 테러와의 전쟁! <다이아드4.0>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정부에 불만을 품은 전 정부요원의 엄청난 디지털 테러에 교통통신, 방송, 금융 등 국가의 모든 기간 시설이 초토화된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컴퓨터 해킹 용의자 매튜 패럴(서진) 등을 FBI본부로 호송하던 존 맥클레인, 매튜 패럴의 집으로 들이닥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정부의 네트워크 전진망을 파괴해 미국을 장악하려는 전 정부요원 토마스 가브리엘이 자신의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해커들을 죽이는 동시에 미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미국의 교통통신, 금융, 전기 등 모든 네트워크가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미국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 뉴저지주 워싱턴으로 버지니아로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가브리엘이 존 맥클레인의 딸 루시를 인질로 잡고 마는데...

▲마담탱크 (채널CGV 오후 10시30분)

8년 전, 처녀 덕이 그리고 학규. 욕망에 눈멀다. 불미스러운 오해에 휘말려, 지방 소도시 문화센터의 문학 강사로 내려온 교수 학규(정우성)는 퇴락한 놀이공원의 매표소 직원으로, 고여있는 일상에 신물 난 처녀 덕이(이수)와 겹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학규는 복직이 되자마자 서울로 돌아가고 덕이는 버림 받는다. 8년 후, 악녀 덕이, 학규와 그의 딸 청이 사이를 파고들다. 8년 후, 학규는 작가로 명성을 얻지만 딸 청이(박소영)는 엄마의 자살이 아버지 탓이라 여겨며 반항하고, 학규는 눈이 멀어져 가는 병까지 걸린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학규의 앞 집으로 이사 온 여자 세정.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학규가 세정이 8년 전 덕이라는 걸 모든 채 그녀에게 의지하는 사이, 청이 또한 그녀에게 집착하게 된다.

덕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 학규,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고 위험한 질투를 시작하는 청이. 세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의 한 가운데, 마침내 주도권을 쥔 덕이는 학규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OCN 5:40 엠 7:10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9:30 성범죄수사대: SVU 시즌 8 11:30 NGS: LA 시즌 13:30 블랙 17:10 핀타스틱 4(2015) 19:20 다이아드 4.0 22:00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채널 CGV 2:50 허만브드 4:50 도가니 7:20 라자루스 9:00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11:30 사랑하기 때문에 13:50 마틸다 15:50 클로버필드 10번지 18:00 표적 20:00 매트릭스: 분노의 도로 22:30 마담탱크

Mnet 6:50 M morning 7:2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8 8:40 WANNA ONE GO: ZERO BASE 10:20 2017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30 더미스터-음의 공존 14:00 MPD Music Tak (SNS/메신저) 15:10 WANNA ONE GO: ZERO BASE 16:50 Daily Music Tak (SMS) 18:00 2017 Mnet Asian Music Awards in Hong Kong 22:00 2017 MAMA 수상식 특집

스포츠·레저

MBC스포츠플러스 9:00 2017 알미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1:00 <당구스페셜> 2017 라블르 3쿠션 당구월드컵 8강 준결승 13:00 다시보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여자배구 명승부전 15: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17:00 <당구스페셜> 2017 산타 크루즈 세계 3쿠션 선수권대회 준결승-결승

SBS 스포츠 9:00 2010 남극점 월드컵 하이라이트 10:00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11:00 17-18 시즌대한국 쇼트트랙 에이스 13:00 2014 세계 3쿠션 당구선수권대회 15:00 2017 월드컵 여자 배구 17:00 리우 2016 여자배구 19:00 소치 2014 동계올림픽 21:00 17-18 도드람 V리그

뉴스·다큐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산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문의 시사특강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한국경제TV 6:00 코보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인 13 15:40 부자권민 만들기 금융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현장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정의주식 시구팔꾸 21:00 대박 천국

음악·애니

MBC 뮤직 8:00 Good Morning MBC MUSIC 9:00 2017 멜론뮤직 어워드 13:00 MBC MUSIC HIT SONGS 14:00 주간아이돌 15:00 세상의 모든 방송 16:30 순위의 재구성 18:00 시골경찰 2년 19:30 무한도전 21:00 주간아이돌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타넬마키드 W 시즌 9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엘미리언 13:00 마움의 소리 14:00 안녕! 괴물기발 15:00 아들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자마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섀몽 18:00 베이비레이드 버스트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2:45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태양의 제왕 13:45 태평양의 야생천국, 밴쿠버섬 14:45 <세계 테마 기행> 히말라야의 선물, 네팔- 3부 / 4부 16:15 TV 동물농장 18:45 맨인블랙박스 19: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20:15 <세계 테마 기행> 히말라야의 선물, 네팔- 4부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제27기 한국 고등학교 검도상비군 선발전 성료

남자 고교 상비군 10명, 국제 교류전 6명 선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치러진 2017년 제27기 한국 고등학교 검도상비군(남자 3학년) 선발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선발전은 한국중·고등학교

경기결과 ▲남자 고교 상비군에는 강배원(서운), 전철영(홍곡), 이용진(광명), 안태하(장곡), 여위웅(성남), 최민규(대구공고), 최용찬(서석), 임상민(경북), 엄주현(발곡), 김성현(경북) 선수가 선발되었고 ▲국제 교류전에는 강배원(서운), 이용진(광명), 여위웅(성남), 최용찬(서석), 엄주현(발곡), 전철영(홍곡) 선수가 선발됐다. 이석화 군수는 "한국 검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남자 고등학교 상비군과 국제 교류전 파견 학생 선수를 우리 군에서 선발돼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훈련해 더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1987' 압도적인 비주얼 담은 메인 포스터 2종 공개

김윤석-하정우-유해진-김태리-박희순-이희준 출연



김윤석-하정우-유해진-김태리-박희순-이희준 등 연기력과 개성을 겸비한 배우들의 출연과 <자기를 지켜라!>, <하> : 괴물을 삼킨 아이>의 장준환 감독의 신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1987>이 모두가 뜨거웠던 시간을 각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의 압도적인 비주얼을 담은 메인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감독: 장준환] 제작/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우정필름]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냈던 사람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1987>이 각자의 위치에서 신념과 양심을 건 선택을 했던 인물들 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포스터는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대공수사처 '박치

경의 변화와 축적으로 그 형상을 드러내는 백색의 공간에 놓인 산, 강, 풍경들을 통해 우리 삶의 궤적을 표현하고 있다. 박진희의 화면을 구성하는 밀랍과 뜨개질 등의 오브제는 만듦과 닮은 과정을 통해 불완전한 머금은 유년의 기억을 치유하고자 한다. 현실과 환상의 정교한 혼합으로 낮설고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윤병운은 눈과 함께 내리는 고요로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줌과 동시에 화면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은정은 휘몰아치던 바람처럼 날아버린 대지의 하얀 풍요 속에서 따스한 겨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록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언뜻 들여다 본 바깥 마른 나뭇 가지가 품고 있던 초록의 빛으로 우리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표현하고자 한다. 평화와 순수를 상징하는 꽃으로 된 귀를 가진 정성원의 토끼는 동물들이 뛰어노는 여유로운 실연의 풍경을 연상하게 한다. LED의 빛을 투과하는 수많은 난 구멍들로 인해 비로소 형상을 구축하는 최수환의 푸른 화면은 차가운 겨울 밤 달빛에 반사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송병배기자

서천초, 이정아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는 어머니회 모임 개최 서천초등학교(교장 나혜숙)는 지난 6일 오전 10시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내 도서관에서 이정아 작가를 초청하여 책 읽는 어머니회 12월 모임을 개최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현대제철, 올 한해 30만cc 헌혈해 이웃사랑 실천 현대제철당진제철소는 올 한해 30만cc의 혈액을 이웃을 위해 내놨다. 지난 5일 실시한 4차 헌혈 캠페인에는 210명이 참여해 3차까지 참여한 인원과 합치면 735명이며, 이를 혈액액으로 환산하면 약 30만cc에 달한다. 또한 직원들은 총 280여명의 헌혈증을 기증해 두 번의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대전대 제9회 POSTER DAY 및 LINC+페스티벌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동서생명과학연구원(원장 손정규 교수)과 LINC+사업단(단장 김선태 교수)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학 해화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제 9회 POSTER DAY'와 'LINC+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청양군 목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자원봉사의 날' 추진 청양군 목면 자원봉사 거점센터(센터지배 배성옥)는 지난 4일 관내 화양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염색과 재능기부 활동으로 핸드폰 덮개를 만들고 말뚝이 되어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당진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전개 당진시는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의 달진과 아사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6일 이마산 일원에서 (사)충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당진지회 회원 15명과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직원 5명이 콩, 옥수수, 귀리 등 400kg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지역 공익단체·기업 '재능기부'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디자인버스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공익단체·기업의 홍보물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밭대 디자인+퍼스트무버사업단(Design Plus First Mover, 단장 노황우 교수, 이하 'D+FM사업단')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기능을 가진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광고 디자인을 해 주는 것으로, 대전시가 광고물 제작과 홍보매체를 지원한다. 한밭대 학생들이 디자인 재능기부에 나선 곳은 ㈜공감만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100세인생만찬 등 총 7개 기업과 단체이다. 이정복기자

한남대학교, 제23회 한남인문문화상 시상식

'한남인문문화상' 고시영 목사에게 수여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6일 낮 12시 정성균선교관에서 제23회 한남인문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인 고시영 목사(72)에게 상장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했다.

한남대 인문학술원은 "고 목사는 서울 장신대 이사장(1999~2015년)으로 봉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공헌했고,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을 주도하여 기독교 통합과 기독교 인문학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 목사는 수상소감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명성이 높은 한남인문문화상을 수상하게



패 큰 영예이며, 기독교 인문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더 기쁘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이 상의 명예를 지키며 남은 생을 기독교 인문학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목사는 구의교회, 부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서울장신대의 법인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남인문문화상은 미국 남장로교 파견 선교사로서 한남대 설립위원장과 초대 총장을 지낸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문)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선교·교육·봉사에 공로가 큰 인물 또는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며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정복기자

전공노 충남대지부장에 이주은 후보 당선



전공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제8대 충남대학교지부장에 이주은(사진) 직원이 당선됐다. 전공노 대학본부 충남대지부장은 지난 12월 5일(화) 제8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13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주은 후보가 105표를 얻어, 김재동 후보(65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주은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주은 직원은 지난 1990년부터 28년째 충남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노동조합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농협 '사랑의 연탄나눔' 훈훈

예산군 삼교읍에서 관내 소외계층 대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진형)가 나눔축산운동 충남도지부(지부장 천안축협 조합장 정문영), 예산축협(조합장 윤경구)과 함께 예산군 삼교읍에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나눔축산운동 충남지부, 유관 농협노조충남·세종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와 충남지역본부, 관내 농·축협 직원 등 20여명이 함께 예산지역의 소외계층 30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탄 15000장을 배당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쳤다. 유진형 본부장은 "지속적인 나눔축산 운동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축산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김정환기자



아산시 모종동 위치한 꽃마루 아산점

관내 독거노인 초청 이웃사랑 실천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꽃마루 아산점(대표 최보용)이 지난 5일, 아산시 관내 독거노인 100여명을 초청해 샤브샤브와 초밥, 스테이크를 제공하며 어르신들께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꽃마루 아산점의 초청을 받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세용)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100여명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최보용 대표는 "아산 어르신들을

도시에서 대접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다. 오늘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분들의 이런 정성과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아산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봉사체험교실, 보훈문화상 수상

5개 부문 중 '예우증진' 부문 수상



국립대전현충원 추천으로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제18회 보훈문화상' <예우증진 부문>에서 대전봉사체험교실이 수상했다. 대전봉사체험교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게 됐다. 권울정 원장은 "대전현충원의 추천을 통해 수상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진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보훈처의 인정을 받은 사회단체로서 대전봉사체험교실이 우리 사회를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양장

사업평가회 및 통일대비 시민교육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지회장 유석근)는 6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사업평가회 및 통일대비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개최돼 통일시대 민주시민 교육과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이어졌다. 이날 유석근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와 통일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닐 때만 쟁취할 수 있으므로 나라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헌신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화 청양군수는 "최근과 같은 안보적 위기상황일수록 급

변하는 정세 및 평화적 통일방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통일의지 확산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보분야 전문가인 한정근 교수(육군협회 충남계룡시 지부)로부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꽃피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올바른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겨울철 혈관 비상! 뇌혈관 질환 예방하기" 건강강좌



한국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보건교육관에서 뇌혈관 질환자를 위한,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노인층 부원장(사진)의 진행으로 평소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뇌혈관 질환 예방하기"라는 주제와 함께 금금증에 관한 질문과 토의 시간도 갖는다. 배기용 본부장은 "겨울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접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인 강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권유했다. 송병배기자

온양3동 광민경 주무관

영어부문 '우수상' 수상



아산시 온양3동(동장 김형관)에서 근무하는 광민경 주무관이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에서 영어부문 '우수상' 수상이 소식을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광 주무관은 지난 11월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 영어 부문 '우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우수상은 전국 공무원 198명이 참가한 이번 외국어능력평가대회에서 1차 공인어학성적표 전형, 2차 FLEX 영어꽃피우기 시험을 통과하고 3차 본선대회에서 개인 발표와 조별 토론을 거쳐 수상하게 됐다. 아산=리량주기자

교단 에세이



신경희
충남교육청 장학관

12월이아, 누군가 꽃가에 가만히 속삭입니다. 12월은 누구에게나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지요. 터번만 두르지 않았을 뿐, 인도에서 가져온 오래된 점복을 사용하게 됩니다. 벌써, 산과 들녘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쪽 마당에서 산수유 노란꽃등 울리던 그 날을 건너, 뜨거웠던 여름, 황금 빛 가을을 지나서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슬픔의 미결수가 되어 또 한 계절을 떠나보낸다'던 쇠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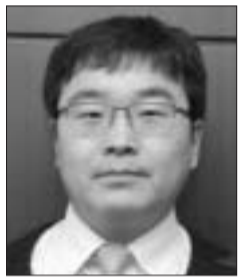
이맘때면

어른거립니다. 농천 기억들에 이기가 끼어있지만, 대자연의 큰 품에서 울 한해도 건강히 왔음에 감사드리 는 시간입니다. 잡초처럼 돌아오는 욕심은 여전 한데, 저만치 개편으로 얻은 나이가 제법 수복합니다. 오십 넘어 노인이 찾아오고, 멀리도 가까이도 볼 수 없는 지점에 눈 감으면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두 빛 새살 같던 시절, 책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한눈에 꽃혔던 구절들, 그렇게 시간의 벉물이 나의 담을 넘고 있습니다. 시(詩)에서 나이를 만나면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영원히 반복하는 뒤척거림을 한다/ 나 이 들어 잠 못 드는 밤이 부족 많아 진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중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 먼 기억을 중심에 두고/ 둥글둥글 살아간다는 것/ 무심해 져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 박성우 시인의 <나이

> 전문입니다. 구수를 넘은 김남조 시인의 <시계>는 허탈한 웃음을 짓게 합니다. '시계가 나에게 묻는다/ 그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한다/ 내 면에서 꽃피는 자아와 최선을 다하는 분발이라고/ 그러나 잠시 후 나의 대답을 수정한다/ 사랑과 재물과 오래 사는 일이라고/ 시계는 즐겁게 한탄 웃었다/ 그럴 테지 그럴 테지/ 그대는 속물 중의 속물이니/ 그중이 정답일 테지...'/ 시계는 쉬지 않고 저만치 가있었다' 시(詩) 일부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소망도 사랑과 재물과 오래 사는 일인데"라고 웅얼거렸습니 다. 요즘은 자기 나이에 0.8을 곱해야 인생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나이는 아직 청춘?이거니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 들수록 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느끼는 방식도 점점 변화합니다. 지금의 감정은 오직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

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감동, 순간의 경탄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음미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라아만 후회가 떨어질 테니까요. 멀리 습관성 구름이 떠가고 있습니다. 이쯤 해서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서 옆과 뒤를 살펴보면 소중한 사람들과 무심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사랑하는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 뛰어난 일기일회(一期一會인 것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면 새 해가 온다는 말이 있고, 새 해가 오는 무언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손질하며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더 찬찬히 그려야겠지요. 지금부터 남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기자 수첩



김정환
기자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다. 2000

국제결혼의 또다른 피해

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층각들의 결혼문제로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으로 시작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했었다. 나 최근에는 부족 줄었다. 국제결혼이 줄어든 이유로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한국에 오는 신부들도 한국어능력시험 토익 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정 문화원에서 단기간 수료과정을 거쳐 기본점수를 받아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면서이다. 강해진 법으로 인해 어떻게 국제결혼을 성사한 남성들은 신부의 입국 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일

들이 작용하고 있다. 막상 결혼은 했지만 신부가 한국어 능력 테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정 문화원에서 120~150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부산에서 국제결혼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져 비자불허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신랑은 억울함을 국제결혼업체에 방화 살인 사건의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비자를 불허한 정부의 책임인가? 신부를 소개한 업체 책임인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진 신부를 선택한 신랑의 책임인가?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인생을 국가가 개입하여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농촌층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과 동시에 외국인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고 한국어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신부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예절을 배우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논평



안장현
아산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한다. 아산시에

아산시 기금관리, 혁신이 필요하다

도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상위변형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다. 2018년 기금운영계획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산시 기금운영을 분석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된다. 각 기금의 연별 이자율을 비교해보니 큰 편차가 있었다. 2014년은 2.40%부터 3.38%였으며 2017년은 1.38%부터 1.8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같은 은행에 예탁하지만 예탁하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

라졌다. 자활기금은 매년 높은 이자율을 받았지만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계약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기금 운영 담당 부서장들이 각자 계약하다보니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례적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다. 저금리시대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0.1%의 이자율이라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17년 3차 추경에서 농어업발전기금 30억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운영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이자율만 지급하였다. 이를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더 많은 이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이자 확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 기금 사용시에도 일반 수용비 성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을 통해 여성, 농업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산시의 시작이 더 많아지고 실효성 있어지길 기대한다.

사설

'빛 안갯는 풍조' 경계해야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빛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을 10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상자는 159만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빛 탕감' 정책을 내왔지만, 원금까지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에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 실제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100% 탕감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첫 원금 100% 탕감의 의미가 강한 만큼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기 소액 연체자가 159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100% 원금 탕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된 장애인용

자동차,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은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의 경우 월 99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재산, 소득, 금융, 과세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에 연체하고 있는 40만명의 경우엔 본인 신청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재산·소득 조회를 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다. 장기간 적은 액수도 못 갚는 건 자력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짐을 더 지우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탕감으로 구제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종의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에서 원금까지 전부 갚아주기 시작하면 빌린 돈을 일부러 안 갚는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협치 노력은 없고 '거래'만 난무했던 내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예산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넘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예산 규모 역시 정부안 429조원보다 다소 삭감(1375억 원)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 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예상은 보기에 좋게 빛나갔다. 예산 전쟁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한국당은 원천투표를 주장하며 결과에 반발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다. 한데 그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안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뒷거래에 가까운 정치적 흥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의석이 부족한 민주당은 캐스팅 보트를 친 국민의당에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동력을 얻었다. 호남의석이 유난히 많은 국민의당은 여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대신 호남 KTX 무단강항 경우 등의 실리를 특목히 챙긴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민주당의 협력도 다짐 받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국

당보다 더 강력하게 반대했던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은 '거래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도 상당부분 반영시켰다. 자신의 지역구 숙원사업을 챙기려고 이리저리 뛰는 것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지역 건설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 담당 국장이 힘들다고 하자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지금 우리 정치권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이 부여한 캐스팅 보트의 힘을 개인 지역구 챙기기에 동원하는 수준이니 하는 말이 다. 국민의당이 짧은 시일내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와 상식의 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얼마나 많은 이득을 봤는지 몰라도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과 가치의 훼손을 감안하면 그리 남은 장사는 아닐 것이다. 협치의 노력은 외면한 채 정치적 거래에만 몰두했던 민주당, 국가와 미래보다 당리당략 챙기기에 바빴던 국민의당, 완벽하게 무능했던 한국당... 이번 예산안 처리 전쟁은 정치권 모두가 패자였던 한판 승부였을 뿐이다.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제17호 지혜의 샘물 발간기념식

대전시서구새마을회(회장 정상수) 산하 새마을문고대전서구지부(회장 손도선)는 6일 새마을문고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동 영화관에서 "제17호 지혜의 샘물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동문고에서 독서지도를 받은 학생 및 회원의 작품과,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출품 입상작을 모아 책으로 엮어낸 것으로 유공문고지도자 시상과 작품 낭송, 영화 관람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금강수질 개선 일정 유속 확보 필요"

충남도와 세종시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2차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등 각종 변화를 살피고, 최적의 관리 방안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 2단계 2차년도 연구용역 결과, 금강의 유기물 지표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보존성 유기물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 국가하천 수질측정망 수질 자료에 따르면, 부여 백제교 지점의 경

우 금강 정비 사업 전 2.90ppm이던 BOD 농도가 2015년 2.5ppm, 2016년 3.1ppm, 2017년 10월 2.8ppm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점 COD 농도는 금강 정비 사업 전 6.4ppm, 2015년 6.7ppm, 2016년 7.8ppm, 2017년 10월 7.5ppm으로 조사됐다. 불로포필-에이(Chl-a)의 농도도 금강 정비 사업 전 33.1mg/m³에서 2015년 34.1mg/m³, 2016년 47.4mg/m³, 2017년 10월 40.6mg/m³으로 집계됐다. 수생태계도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동자개, 밑어 등 유수생 어류는 감소하고, 붕어·잉어

등 정수성 어종은 증가했다. 또 가시박, 가시상충 등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생물 폐사 사례도 잇따라 조사됐다. 그러나 총인(T-P)과 총질소(T-N) 농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 오염원 주요 유입 경로인 갑천과 미호천, 논산천 등에 위치한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개선 사업이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금강 수체와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강에 유입되는 유기물과 영양염류 관리도 중요하지만 금강 수체 안에 정체된 퇴적물질을 관리가 중요하며, 정체수역 안에서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내부 생산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하류로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천 유속을 초속 0.1m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녹조 발생 제어도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신동현 도 기후환경복지국장과 자료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보고,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 국장은 "보개방 확대에 따라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금강 수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자료로 활용되고, 금강의 환경 친화적 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무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편곡, 지휘
김덕영

국가 유공자 및 장애우와 함께하는...
김덕영 프렌치팝오케스트라 정기공연

French CONCERT

2017.12.14.(목) 저녁 7시 / 충남대 정심화홀



초대가수
김연숙

소프라노
정진옥

오카리나
정지석

초대가수
나진아

초대가수
정구민

초대가수
박정은

소고춤
이세희무용단

MC
박은주



공연문의처 : 042-522-7858

티켓 전석 30,000원

주최/주관 : KIMDEOKYOUNG French Pop Orchestra 김덕영프렌치팝오케스트라

후원 : 대전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 / 대전광역시 /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단/한국불교태고종 대전총무원/한국경음악협회

협찬 : 대전투데이 /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단/선샤인관광호텔/아진기획 나진아녹음실